

격랑기 한 출판인의 뜨거운 발걸음

《책의 탄생》 펴낸 한길사 김언호 사장

책의 역사는 지식의 역사다.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식의 역사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식의 역사를 설계하고 건축하며 한 길을 걸어온 한길사의 김언호 사장(52)이 그 걸어온 발자국들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책의 탄생》. I권은 책을 만드는 개인의 내밀한 일기형식이고 II권은 직업 출판인으로서의 사회학적 인식을 정리했다.

책이 조직하는 문화운동

“책을 만드는 사람과 책 만드는 일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싶었습니다. 저자는 책을 쓰지만 한 사회의 출판문화는 출판인들의 몫입니다. 지식 정보시대에 책을 만들고 읽는 행위 자체가 곧 사회적 자산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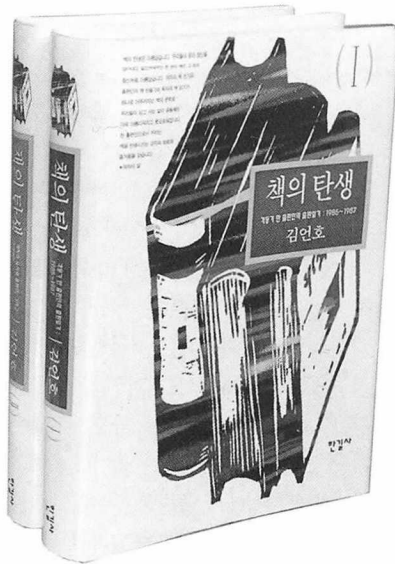
두툼한 분량에 방대한 인물사진을 담아 우선 볼거리도 그득한 두권의 《책의 탄생》은 김사장의 말대로 ‘책이 조직해가는 문화운동’의 기록이다.

I권은 85년 3월8일부터 87년 12월21일까지의 일기모음. <격동기 한 출판인의 출판일기>라는 부제처럼 긴박한 사회상황에서 책을 통해 사회와 문화운동을 펼쳐려던 한 출판인의 뜨거운 발걸음을 좇다보면 어느새 80년대의 시간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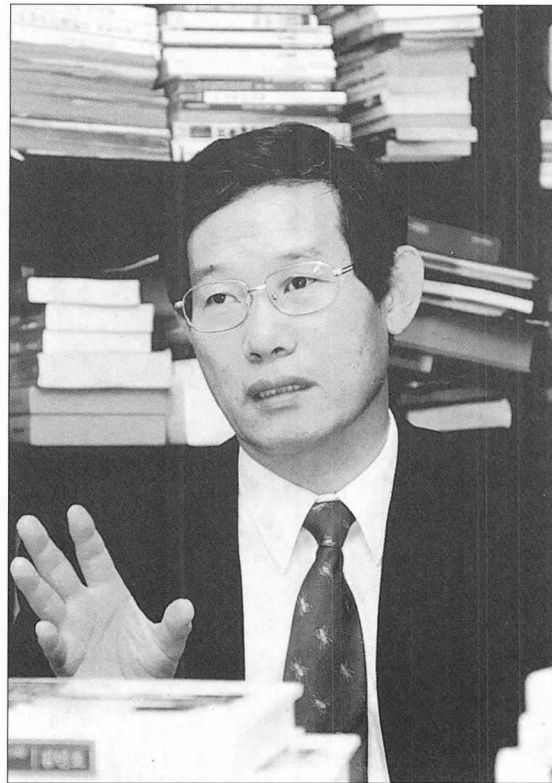
미문화원 점거농성과 박종철 고문치사 등 정부와 민주화세력이 팽팽히 대립한다. 전시된 미술작품을 떼어가고, 대낮에 경찰이 버젓이 책을 거두어간다. 정부는 이른바 ‘이념도서’ ‘좌경 불온서적’을 뿌리뽑겠다고 호언한다. 문화정책을 수행해야 할 문공부는 출판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출판물 성격에 대해 ‘혼화’한다.

김사장은 이를 “이성을 잃은 행위” “벌거벗은 권력의 광기”라고 거침없이 적어 놓는다. “출판의 자유는 사치품도 골동품도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를 살아 있게 하고 발전시키는 전제조건이다.”

이런 생각은 김사장 개인을 넘어 뜻있는 출판인들의 마음이기도 했다. 80년 ‘서울의 봄’을 지나 참담한 5.17을 겪은 출판인들이 80년대 초반 책을 통한 우정에 바탕을 두고 만든 수요회는 <출판인 17인 선언>으로 정부의 출판계 탄압에 항거했다. 이들은 서점



“80년대가 이념적 갈등의 시대였다면, 90년대는 문명적 전환의 시대입니다. 출판의 내용도 사회과학적 문제의식에서 세계사적 보편타당한 인문적인 차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출판문화 역시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과정에서 끊임없는 실험이 필요하겠지요.”



김언호 사장.

공간 확대나 독서 활성화, 좋은 책 운동 등 출판의 사회적 기능에도 열의를 쏟아부었다.

이런 사회상황 속에서도 김사장이 문화조직자로서, 전문 출판인으로서 촉각을 늦추지 않고 부지런히 뛰어다닌 열정은 감탄할 만하다. 함석헌·고은·신경림·강만길·이영희·문익환·이효재·한승헌·송건호 등 쟁쟁한 필자들에게 이 시대에 지식인이 저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설득하고 실천케 하는 모습도 진솔하다.

“책을 통해 나는 무언가를 비로소 할 수 있다. 정서와 사상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출판의 역사는 인간 해방의 역사다. 출판은 곧 인간의 자기실현을 의미하고, 인간의 자기실현의 과정은 곧 인간해방의 역사이다.”

일기의 형식인 만큼 당대 수많은 지식인들과 출판인·언론인들이 김사장에게는 솔직한 감동과 실망의 대상으로 오르내리기도 한다. 사건과 중요한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 또한 귀중한 자료이다. 견실하고 의식 있는 제책사 사장에 고마워하고, 방송 언론의 반출판문화적 태도에 분노한다.

하지만 이 일기에는 실명이 등장하는 재미보다 오히려 80년대 후반 ‘문화’를 둘러싼 이 땅의 지식사회가 어떻게 뭉치고 움직였던가를 회상할 수 있는 기쁨이 더 크다. 그가 실험적으로 시도했던 ‘한길 역사기행’

‘한길 사회과학 강좌’ ‘한길 사랑방’ 등은 막힌 출구 앞에 답답증을 못 견뎌 했던 수많은 젊은 지식인 학생들에게는 희망의 줄기였다.

늘 새로운 필자를 찾아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출판 열정은 그야말로 또다른 ‘투쟁’처럼 비쳐진다. ‘집념처럼 출간해온’ <오늘의 사상신서>, ‘한길사의 운명’이었던 <해방전후사의 인식>, 몸과 마음으로 살아 있는 역사를 받아들이는 <한길 역사강좌> 등 출판의 과정 하나하나가 80년대 격변의 3년 세월과 함께 그려져 있다.

“책만들기는 내 존재의 출발이자 귀결”

<저자와 독자와 출판인, 그리고 시대정신>의 부제를 단 II권에는 80년대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를 사회사적으로 살핀 글과 고은·윤이상·송건호·신영복·시오노 나나미·이와나미 사장과 직접 나눈 대화를 담았다. 한길사에서 펴낸 주요 출판물을 중심으로 한 김사장의 출판사회사적인 글 역시 그의 출판 소신이 잘 드러난다.

김언호 사장은 이미 1987년 <우리시대 출판운동의 상황과 논리>를 펴낸 바 있다. 한길사가 걸어온 길은 곧 김사장 개인의 출판애정과 비례함을 이번 저서에서도 읽을 수 있다. 김사장에게 “아름다운 한편의 책을 만드는 일은 나의 존재의 출발이자 귀결”이다. 중앙대 신문학과와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졸

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 해직된 이후 76년 한길사를 열어 지금까지 1200여권의 책을 만들었다. 지난해엔 책만들기 스무해를 넘기며 생의 전환기에 선 스무살 청년의 정신을 새롭게 다지기도 했다.

90년대 후반을 걷는 오늘 김사장에게 10년 전의 기록은 여전히 유효한 꿈과 정신으로 남는다.

“80년대가 이념적 갈등의 시대였다면, 90년대는 문명적 전환의 시대입니다. 출판의 내용도 사회과학적 문제의식에서 보편타당한 인문적인 차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출판문화 역시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과정에서 끊임없는 실험이 필요하겠지요.”

한길사의 책들을 보면 김사장의 이런 생각이 잘 나타난다. 80년대에 <오늘의 사상신서>와 <해방전후사의 인식> <태백산맥>이 자리를 지켰다면, 90년대에는 <한길그레이트북스>와 <로마인 이야기> 그리고 <혼불>이 뛰고 있다. 각종 이벤트와 강좌로 ‘문화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실험정신 또한 90년대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문학이 새로운 우리의 테마”라고 강조하는 김사장은 이제 90년대의 일기는 ‘한길사 가족’들이 기록해주길 바란다. ‘책의 역사’는 곧 우리 모두의 역사라는 생각 때문이다.

— 김지원 기자

한길사/B4/각 692, 464면/각 20000, 15000원